

# GLOBAL ESG NEWS

GN-19-03

DATE 2019. 05. 24.

자료문의 사업본부 분석2팀

담당자 박성식 연구원 (sspark0716@cgs.or.kr)

## 2018년 주요 자본시장의 책임투자 규모 및 전략

### GSIA, 책임투자현황 보고서 발간

- 2019년 4월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(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, GSIA)는 주요 자본시장의 2018년 책임투자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(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8)를 발간함
- 동 보고서는 2012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으며, 유럽, 미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 및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책임투자 전략별 운용규모를 집계함

### 후발주자 시장의 책임투자 성장세 부각

- 분석대상 지역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4년 17.7조달러에서 2018년 30.7조달러로 4년간 73.5% 성장하였으며, 이 중 일본 시장의 책임투자 성장세가 가장 뚜렷함
- 일본의 책임투자 규모는 2014년 70억달러로 당시 국내 책임투자 규모(66억달러)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, 2018년에는 약 2.18조달러로 최근 4년간 310배 증가함
- 그 결과 책임투자자산 중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후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%에서 2018년 15%로 증가함

〈표〉 주요 자본시장 책임투자 규모

구분	2014	2016	2018	성장률(14-18)
유럽	10,775	12,040	14,075	30.6%
미국	6,572	8,723	11,995	82.5%
일본	7	474	2,180	31,042.9%
캐나다	148	1,086	1,699	1,048.0%
호주/뉴질랜드	180	516	734	307.8%
합계	17,682	22,890	30,683	73.5%

### 일본: 주주관여 및 ESG통합전략 강세

- 일본에서는 주주관여와 ESG통합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, 전통적 스크리닝전략의 활용도는 낮음. 이러한 배경으로는 일본 정부와 연기금(GPIF)이 주도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및 ESG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 점이 꼽힘
- 구체적으로 일본 재무성은 스튜어드십코드 제·개정하고, 경제산업성은 투자자기업 간 “협력적인 가치창출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표함
- 아울러 일본연기금(GPIF)은 스튜어드십 원칙을 공표하고 ESG종합지수(FTSE Blossom Japan Index, MSCI Japan ESG Select Leaders Index)와 여성활약지수(MSCI Japan Empowering Women Index)를 패시브 주식투자의 ESG벤치마크로 선정함

- 한편, 2017년에는 기관투자자 연대 주주참여 포럼(Institutional Investors Collective Engagement Forum: ICEF)이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함. 또한 일본증권업협회는 “증권업계 SDGs(지속가능목표) 추진간담회”를 설치하고 책임투자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확대하고, 회원기관 대응 개선을 도모하는 등, 민간 주도의 책임투자 움직임도 활발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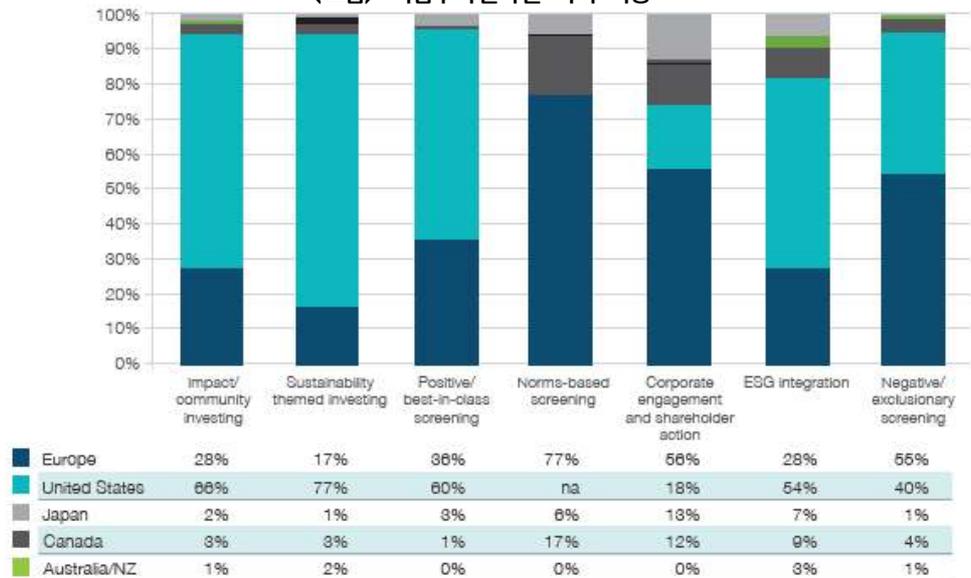
## 유럽: 투자배제 축소, ESG통합과 주주참여 증가

-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규범기반-네거티브스크리닝 전략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, 동 전략의 활용 규모는 지난 2년간 각각 38%, 7% 감소한 반면, ESG통합전략과 주주참여전략을 채택한 책임투자자산의 규모는 같은 기간 각각 60%, 14%가량 증가함
- 유럽지속가능포럼(Eurosif)의 조사 결과, 유럽의 투자자들은 ①ESG통합전략을 채택하여 ESG 기회위험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, ②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## 미국: ESG통합 우세, 투자배제의 증가

- 미국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책임투자전략은 ESG통합(47%), 네거티브스크리닝(39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네거티브스크리닝 규모가 확대된 점이 특징적임
- 지난 2년 간 미국 내 담배생산기업과 방산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기관투자자의 자산규모는 약 4.8조달러를 기록함

〈그림〉 책임투자전략별 지역 비중



## 시사점

- 전세계 책임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, 미국, 일본 등 주요 자본시장의 책임투자 전략은 국가별 발전단계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임
  - 유럽에서는 전통적 투자배제전략의 비중이 감소하고 주주참여 및 ESG통합전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, 미국에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투자배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
  - 한편 일본에서는 정부와 연기금이 주주참여 및 ESG통합을 활용한 책임투자 환경 조성을 주도하면서 주주참여와 ESG통합전략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활성화되었음
    - 국내에서도 책임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, 국민연금 또한 중점관리 기업을 선정하고 주주참여를 확대하려는 상황으로, 과거 유사한 환경에서 책임 투자의 급격한 성장을 이룬 일본의 사례는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됨

## 참고자료

GSIA,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, 2019